

경기도 서부권 개발에 23조원 쏟는다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 김동연 “경기도 발전 세트”

경기도가 오는 2040년까지 경기서부 지역에 14조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라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 14조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9000억원으로 총투자 규모

는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8000억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2000억원으로 총 14조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9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km), 경기옛길(685km), 광역자전거도로(836km)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지역사업자·지역기획자·시 등이 힘을 합쳐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처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플랫폼’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인창 기자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인천시·시의회·선학동 상가

인천시·시의회·연수구 선학동 상가변영회 주민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 홍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는 6일 연수구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에서 시의회·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의회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희 의원과 연수구 선학동 상가변영회 임원들은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 홍보 지원 협약을 맺고, 음식문화거리를 돌며 상가마다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APEC 인천 유치 거리 홍보에 나섰다.

이날 거리 홍보는 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현장소통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시청’협의 과정 중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대 시민 유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소통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인천시 집행부가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종삼 기자



고속도로 5천km 시대 ‘활짝’ 6일 남양주시 수동휴게소에서 열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개통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은 7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 28.7km와 재정사업 방식의 화도~조안 구간 4.92km 동시에 개통되면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진=포천시)

민주당 경선 1차 발표... 총선 시계 속도

인천 연수를·남동갑 매치업 경인지역서 단수공천 ‘아직’

민주당 제22대 총선 경선 1차 심사 결과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갑은 고남석·정일영 예비후보와 고준수·맹성규 예비후보가 각각 맞붙는다.

입력백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병기 간사는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23개 지역과 단수 13개 지역 총 36개 선거구의 경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력백 위원장은 36개 지역만 발표한 이유는 “논의된 순서, 단수공천 지역은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라고 밝히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공관위는 원외 3인이 재경선

으로 끝내지만 현역의원 포함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현역의원이라는 유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높지 않으면 경쟁력을 재검증한다는 조치인 셈이다. 다만 비명계 현역과 친명을 자처하는 경쟁 후보자가 결선으로 맞붙을 경우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맹점도 있다.

이날 발표된 심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는 광명갑 임오경·임해자, 군포 이학영·김정우, 파주갑 윤후덕·조일출의 매치업이 나왔다.

인천은 연수구를 고남석·정일영, 남동구갑 고준수·맹성규 예비후보가 다시 맞붙는다. 경기·인천 중에서 단수공천 확정은 아직까지는 없다.

민주당은 이의가 제기될 경우 8일까

지 재심기간을 거친다. 또 2차 발표는 구정 이후 발표될 예정이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후보자 등록 및 경선설명회·연설회 등을 거쳐 오는 19일 경선 투표를 실시한다.

경선 1차 발표 직후 임 위원장은 ‘현역 하위 20% 공지와 관련한 지지자들의 질문에 “명단은 본인만 가지고 있다”며 언론 보도된 ‘개별적 전화 공지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임 위원장이 면접 당시에 질문한 “혹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돼서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느냐고 했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원팀이 돼서 승리한 후보에 대해서 후보를 도와 선대본부장을 맡는다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홍정윤 기자

‘특혜 논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감사원 “개발비리 확인 특혜금액 259억원 환수”

김포시와 의왕시를 비롯한 일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각종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 직원 A 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 씨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 씨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사



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C 씨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했다.

컨소시엄의 실제 대표사는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나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우량한 건설사를 대표사로 허위로 내세워 사업권을 따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자본 20%를 출자해 C 씨 등이 구성한 D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하고 C 씨 소유 회사에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했다.

C 씨는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는가 하면 PFV에 실제로는 불리한 계약을 본인이 소유한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해 총 259억원을 챙겼다.

이 금액은 PFV에는 손해가 된 것이다. PFV 이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은 이런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했고, 공사는 PFV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 C 씨, PFV 이사 2명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 한 바 있다.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혜 금액 총 259억여 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

아울러 김포도시관리공사와 IBK투자증권에 해당 관련자를 정직 등 문책하고 앞으로 부동산개발 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삼 기자

경기도 교육

2024

미래를 향해 본격 도약합니다

교육자율 업무개선

지역협력 공유학교

에듀테크 하이러닝

학력향상 교육과정

고권보호 역량강화

지속
균형
미래